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설 맞이 이웃사랑 실천

김영찬기자 | 승인 2026.02.18 16:04 | 10면

헤림학원에 온누리 상품권 전달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농업인 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복지시설인 '헤림학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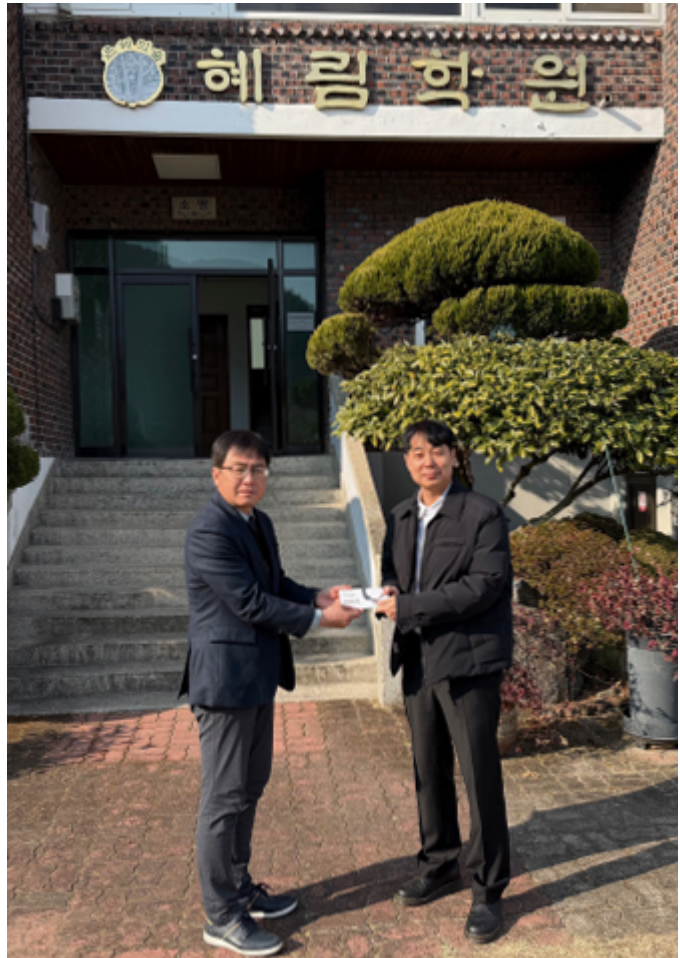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시설 거주자들의 명절 물품 구매와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경 지사장은 직접 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약소하지만 이번 나눔이 헤림학원 가족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상품권인 만큼 지역 경제에도 작은 활력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지사장은 "앞으로도 의령지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중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농촌 집 고쳐주기, 지역 농산물 구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찬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사회 복지시설인 '헤림학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김영찬기자